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상징을 통한 감정방어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 양 화 과
김 이 슬

상징을 통한 감정방어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 양 화 과

김 이 슬

인 준 서

김이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를 통한 방어적인 감정들을 조형적인 모습을 상징화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작업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다.
본인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모습들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들 중 감정 방어라는 단어를 통해 관계의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들을 관찰하였다.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 속에 개인마다 수많은 감정들을 안고 살아간다. 관계는 자연스럽고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로 포함된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모습으로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 또한 변하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결국 사회가 발전되어갈수록 '우리'라는 의미는 점점 퇴색 되어가고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 또한 잃어가고 있다. 본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소통 부재가 등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소통이 사라진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아의 문제로 깊어진다. 이것은 사회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부재에서 시작되며 그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로 좋

고 나쁨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모습들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통하여 겪은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감정방어를 통해 진정한 관계들의 의미를 모색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원인을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의 방향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모습들과 본인이 경험한 인간관계의 모습 속 내면의 감정들을 시각적인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관계 속 고립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내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방어적인 자세와 감정의 변화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관계의 사회적 배경 ····· 3

1) 사회와 공동체 ····· 3

2) 감정방어와 내면적 관계 ····· 5

2. 작품 표현 연구 ····· 9

1) 소재의 상징화 표현 ····· 9

2) 반복적 표현과 재료 ····· 15

Ⅲ. 결 론 ····· 19

작품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작품 1] 건담 십장생도Ⅰ, 장지에 채색, 117x91cm, 2011 ····· 21
[작품 2] 건담 십장생도Ⅱ, 장지에 채색, 91x117cm, 2011 ····· 22
[작품 3] 관계를통한규제, 장지에 혼합재료, 30x30cm(x2), 2013 ····· 23
[작품 4] 보호의 본질Ⅰ, 장지에 혼합재료, 91x117cm, 2014 ····· 24
[작품 5] 보호의 본질Ⅱ, 장지에 혼합재료, 91x117cm, 2014 ····· 25
[작품 6] 보호하다, 장지에 먹, 163x130cm, 2014 ····· 26
[작품 7] 보호하기위한목적, 45x53cm(x4), 장지에 혼합재료, 2014 ····· 27
[작품 8] 보호자들Ⅰ,91x117cm, 장지에 먹, 2014 ····· 28
[작품 9] 보호자들 Ⅱ, 91x117cm, 장지에 먹, 2014 ····· 29
[작품 10] 보호수단, 117x91cm, 장지에 먹, 2014 ····· 30
[작품 11] 보호-경계, 15.8x22.7cm(x6), 장지에 먹, 2014 ····· 31
[작품 12] 보호화하다, 50x5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4 ····· 32

Ⅰ.서 론

이 논문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의 형태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관계를 통한 내적인 방어들은 본인에게 관계에 대한 관찰과 사회라는 틀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관계는 익숙하고 친근한 단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속 모든 관계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에서의 관계는 위계 질서와 규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관계의 수많은 모습들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회 중심의 관계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목적의식만 남아있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단순히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집중하기보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존재하는 방어적인 행동들을 알 수 있다. 이에 겪는 방어적 감정들을 통해 관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며 감정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사회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개인에게 감정을 숨기고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의 고립을 초래하며 또 다른 갈등을 키우게 된다.

본인의 작업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경험적인 관계를 빗대어 관계에 자신 없는 '나'를 중심으로 방어는 서서히 형성되어지고 수많은 관계를 마주하면서 하나의 감정 방어가 완성된다.

작업 또한 경험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사회의 틀 속에 있는 공공연한 관계의 안일함으로 감정 또한 숨기게 되는 모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적 영향과 피상적인 개념들이 익숙해지면서 의미는 점점 퇴색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감정방어라는 의미가 관계의 불안함을 겪는 우리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해 방황야만 했던 내적인 감정과 모습들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 재료에 대한 기법과 소재의 사용을 통해 표현된 이미지를 깊이있게 관찰하고자 한다.

Ⅱ.본 론

1. 관계의 사회적 배경

1) 사회와 공동체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관계가 존재한다. 즉 인간관계는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자신의 본성을 자연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유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는 사람간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실천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모습, 미래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관계는 여러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다.

대인관계의 형태는 전통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관계의 중심은 '가족'이며 유대감을 통해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본질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띠었다. 그리고 과거의 인간관계는 특별한 목적 없이 마을, 농경생활을 통하여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지속하여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가 점점 발전되어 가면서 인간관계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관계의 의미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집단 속에서 이렇게 인간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집단 사이에 또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협력을 요구한다.[1]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대하는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에서의 관계는 구성원 사이의 안정된 관계를 지속한다는 맥락은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규율을 정해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한다. 역할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상호 관심을 통해 협력하는 것, 그들의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2]

하지만 사회,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라는 의미보다 사회의 공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들로 인해서 관계를 통한 진정한 소통의 의미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실속위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최소한의 사회

1)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상호자극이라는 반응으로써 상대방에게 표출하며, 다른 사람과의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 상호작용을 거쳐서 일정한 심리적인 결속이 형성된다.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심리적인 연결을 인간관계(human relations)라고 부른다. 강문희, 이광자, 박경, 『인간관계의 이해』,학지사, 1999, p11

2)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조직과 개인의 목표의 조화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분야에서 일방적인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 목표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여(Contribution)와 조직의 목표에 기여한 대가로 월급외의 해택(승진, 자아발전기회 제공) 등의 유인 (Inducement)의 조화가 중요하다. 구현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지사, 2010, p13

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들이 생기면서 겪는 인간소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사회는 발전 될수록 '함께' 라는 의미보다 점차 개인중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까지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 된 관계를 얻기란 힘들어졌다. 모든 관계들은 타인을 통해서 위안 받기도 하지만 감정의 고립 또한 동시에 느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상대의 위치가 동등한지도 생각해야한다. 관계 부재에서 생기는 상대적 불안감으로 타인을 불신하게 되며 관계를 이어지며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면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2) 감정방어와 내면적 관계

감정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현상들을 접하였을 때 마음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 기분이며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자신이 겪은 사회적 지위, 상황,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완벽하지

3) 갑과 을에 대한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한쪽 사람이 더욱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차원이 현재화되어서 이런 차원이 더욱더 인간관계에 가미된다. 이런 차원의 인간관계를 권력관계(power ralations) 강문희, 이광자, 박경, 『인간관계의 이해』,학지사, 1999, p12

않다고 생각하며 항상 내적 갈등을 안고 있는데 인간에게 감정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 감정의 문제는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관계의 갈등 원인, 문제들이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사회에서는 지위를 통한 수직 관계가 존재한다. 개인은 지위에 따른 규제 속에서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인간에게 사회는 관계의 출발점이며 자신의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이다. 사회학적 이론으로써 쿨리(Charles Horton Cooley)는 거울자아(looking glass self) 이론[4]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주변을 거울로 삼아 그 거울을 마주하여 자신을 파악하고 타인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람과의 소통으로 사회속의 수많은 관계들을 이어간다.

그렇지만 관계의 부재를 경험한 감정의 깊이는 상대적이지만 예측하기 힘들다. 충분한 해결 방안 없이는 방어적인 태도와 관계를 대하는 부정적인 자세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개인의 욕구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감정소비는 당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명예, 권력 등 인간 각 개인이 얻고자 하는 욕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어하지도 못하는 상태

4) 심리적 자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람은 자기 주위에 남들의 자신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그는 이 거울자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울자아는 첫째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상상, 둘째로,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 지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상상, 셋째로, 남들의 그러한 평가에 대한 나 자신의 느낌의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쿨리(Cooley)는 말하고 있다. 즉 이 이론에 의하면 남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울 없이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강문희, 이광자, 박경, 『인간관계의 이해』,학지사, 1999, p40

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도전 이라는 긍정적인 외면을 내세운 채 달려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로 가득 찬 인간의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5)]

관계의 고립은 감정적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관계 속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직접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른다. 관계 경험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불안은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극대화되고 이러한 불안이 지속 될수록 인간은 내면적으로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Trauma)[6)]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의식에서 사라졌지만 무의식에 남아서, 종종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원치 않는 행동을 야기하는 이런 상처를 정신분석학에서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저작은 거의 대부분 이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신분석학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러나 의식에 떠오르지 않은 기억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7)]

사회 속에서 감정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한 개인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계속 받으면서 견뎌낸다. 사회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힘이 없으며 개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구조 속 관계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감정방어가 나타난다. 결국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와 획일화된 관계는 감정방어자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

5) 고승희,『인간관계의 갈등의식에 관한 작품표현 연구』홍익대학교, 2001 p11-12

6)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기억 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7)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p243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 찾기 위해 적극적이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대하는 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결국 감정의 상처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은 먼저 참는 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며 또다시 관계를 통한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에 대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방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잠재된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공존을 주장한 방어를 통해 사람과의 소통이 부재된 사회에서 의식세계보다는 정신세계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 치유는 수많은 관계에 지쳐있는 인간의 내면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을 한다.

경험에 의한 기억은 쉽게 지울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감정들을 덜어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규범 안에서 공동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한다. 사회적인 경험으로 겪은 직, 간접적인 관계의 기억들과 무관심한 시각 속에서 나타나는 소통부재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스스로 관계형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소통하였을 때 긍정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작품 표현 연구

1) 소재의 상징화 표현

본인 작업에서는 인간의 감정 방어를 중심으로 관계를 대면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인이 경험한 사회의 모습을 통해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억압된 구조 속에 갇혀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관찰하였다. 이기심, 경쟁구도 등 '나'를 위한 사회보다 배려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보다는 나 자신에게는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기 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무리 안에서 나의 존재는 고립되었다.

고립된 상태에서 관계를 대하는 모습 또한 소극적으로 변하였고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한다는 상황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다.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모든 관계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서 관계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친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목표의식에 의해 유지되어가는 모습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관계가 단순히 친목을 위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분명한 사회에서 존재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 수 있었다. 사회의 차가운 관계 속에서 본인은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소통부재와 외로움을 느꼈다. 그로 인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어도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일방적인 모습에 사람과의 소통을 개인의 판단으로 관계를 예상하게 되었다. 만약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 판단되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가 사라진 조건에서 관계를 마주하였기 때문이다.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점점 관계에서 고립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불안한 소통 속에서 나는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항상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긴장되어있고 자신을 압박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본인은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는 내면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작업을 통해 감정방어하는 내면적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감정방어 대한 의미를 대변하기 위해 '보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상징화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본래 목적인 사람의 안락한

삶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는 로봇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로봇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부합하는 소재로 로봇을 이미지화 하였다.

[작품 1] ,[작품 2]에서 나타나는 로봇의 이미지는 소통 부재로 인해 내면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본인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수호신[8]의 의미를 통해 보호를 상징화 시킨 작업이다.

사람에게 받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심을 통해 바라본 다양한 감정들을 대신하여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당시 본인은 관계에 대해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존재가 필요하였다.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수호신이 있다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바램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하여 위로받고 수호신을 그림으로써 내 자신 또한 강한 의지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에서 느끼는 관계의 긴장감들은 사회가 마음을 치유할 수 곳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각박한 생활 속에 치유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감정에 대한 치유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상호간 감정방어에 지쳐있을 때 하나의 안식처가 필요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기 때문에 수호신의 모습은 단순한 수호신의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한다.

---

8) 어떤 개인. 가정. 직업. 특정직업. 국가 등을 수호하고, 가호하는 신이나 영. (두산백과)

또한 자신의 경험적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들을 수호신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강한 이미지의 로봇에 밝은 색감을 사용하였다.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 속 우울한 감정들을 떨쳐내고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수호신을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채색의 방법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시도한 [작품3]은 탱크의 강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핀, 압정을 이용해 구성하였다.

핀과 압정을 붙이는 콜라주(Collage)를 통해 탱크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작업에서 탱크가 관계 속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돕고자 제작하였다. 하나하나 붙인 핀과 압정은 변하지 않는 사회적인 규범 속 관계의 오해, 불신을 없애기 위한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배경에 담겨있는 격자무늬는 일방적인 관계 규범들을 빗대어 표현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듯하게 그어진 선들의 나열은 마치 본인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한 마음들이 담겨있는 동시에 강제적인 사회적 규제 속에서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속 갈등상황들을 통해 성숙한 이해관계가 잡혀야 하고 관계에 대한 본질을 되물어보는 작품이다.

[작품 4], [작품 5]에서는 전쟁에서 사용된 투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투구는 방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전쟁무기를 통해 불안한 감정의 현재를 대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작업은 앞에서 보여지는 [작품 1],[작품 2]와 다르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을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본격적으로 관계에 중점을 두어 소통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관계를 심층적으로 관찰하면서 관계 속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다.

사람이 쓰는 투구는 본래 전장에서 방어목적으로 만든 도구로 쓰였다. 방어적인 이미지의 투구를 작품에 사용한다면 강조하고자 하는 방어의 의미를 더욱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작업에서 투구만 등장하게 되는데 단지 투구의 이미지로 인해 방어를 보여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담고 싶었다. 투구에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하여 감정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더 이상 감정의 약자가 아닌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 6]에서 탱크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들 즉 사회적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감정과 문제들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투구 작업 보다는 탱크의 모습을 통해 사회의 큰 그림에 가려져있었던 개인의 감정에 대해 집중하고 감정방어의 의미를 시각적 이미지로 풀어내고 더욱더 응집된 모습으로 집중시키고 싶었다. 무수하게 반복적인 기법으로 표현된 점들의 나열이 흡사 강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지의 특유한 흡수성을 배제시키고 강한 필선으로 점과 선을 그려 내면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

고 탱크주위에 그려진 무수한 선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관계의 모습들은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작업에서 직선들과 점들이 모여 딱딱한 형태를 이루지만 완벽한 탱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그리게 되었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대로의 탱크표현은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각자 개성이 담긴 표현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느낄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7]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의 인식 차이를 인정하며 관계의 무리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자 하였다. 신뢰가 무너지진 관계에 대한 감정을 통해 예민한 모습을 버리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관계를 대하는 인식이 달라진 상황을 전제로 기존에 사용했던 재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관계를 대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업에서 본인은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한 드로잉의 개념으로 작업 하였다.화면에서 표현기법이 아닌 오로지 우연적인 표현과 강한 터치로 투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수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그려진 이전에 작업과는 다르게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일바와 오일파스텔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표현과 함께 원초적인 표현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거칠게 표현한 투구를 통해서 그동안 겪었던 감정에 대한 세월의 흔적과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통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의지를 상징화하고자 하였다. 색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원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보호의 이미지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본인은 단순히 투구, 탱크 등을 그리기 위해 그려내는 내용적인 맥락과 부합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진정한 관계와 관계형성을 상징적으로 노력하고자하는 과정을 드로잉으로 통해 보여준다.

2) 반복적 표현과 재료

본인 작업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을 꼽는다면 반복적인 패턴의 등장이다. 관계를 대하는 개인의 감정과 모습들을 점의 형태로 상징화함으로써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불안전한 관계 속 반복적 패턴을 통해 감정의 안정을 찾고 사회와 상호작용 하고자 하는 잠재의식을 나타낸다. 하나의 점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점은 관계를 대하는 자기 자신이며 하나의 덩어리는 관계 속 사회를 의미한다. 결국 인간과 관계의 밀접한 관계를 점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의 형태로 완성한다.

점은 관계를 통한 감정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감정의 완전체로 남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의 갈등을 겪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점의 형태로 통일시켰다. 단순한 형태의 점이지만 내면적 의식은 강한 감정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업에서 표현 된 재료들은 색연필, 먹, 오일파스텔, 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표현된다. 각 재료마다 보여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들을 표현 하였을 때 회화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표현기법에 있어서 주로 형태를 스케치하고 그 안을 채우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 딱딱한 느낌의 표현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느낌들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으며 작업후반의 그림들은 드로잉형식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형태에 벗어난 표현을 통해 긍정적으로 관계를 대하고자 노력하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20대에 느꼈던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자양분으로 자리 잡아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있지 않고 새로운 타인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작업 속에 요소들은 무겁고 남성적인 이미지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반대로 화려한 색감들이 자주 등장한다. 다소 어두운 주제와 이미지의 모습들이 무거운 의미로 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색을 화면에 사용함으로써 그림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을 통해 관계와 감정을 연결시킨다.

색의 선택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선택하며 무의식 속에 느끼는 감정들을 시각적인이미지인 색을 통하여 표출한다. 또한 동양화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먹을 이용한 먹 특유의 표현은 화면에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빠르게 스며드는 우연함을 통해 내면의 상처들을 흔적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작품 8], [작품9]에서의 나타나는 투구의 모습은 [작품 2], [작품 3]과 다르게 점과 면의 경계를 없애고 인간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하였다.

화면 속에 배치된 무한한 점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관계를 대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점의 모습을 통해 감정 치유를 대변한다. 명확한 형태보다 흘림기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하고자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수많은 관계의 감정혼란을 이겨낸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관계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수많은 감정 치유를 통해 관계를 대하는 자세를 고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연습으로 통해 타인과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계를 이어가고자하는 자아로 새롭게 탄생한다. 관계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은 지울 수 없지만 의식의 변화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접한 작업들은 점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작품 10], [작품 11]에서 선적인 요소가 등장한다. 여기서 선은 점과 점의 연결선상에서 움직임과 함께 드러나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이야 말로 실상이다. 그리고 이 선은 점이 움직일 때 만들어 내는 것으로 곧 점과 점의 연결선상에서 점을 스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9]

이렇게 무수한 선은 작품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하나의 유기체 역할을 해준다.

---

9) 박찬휘 ,『칸딘스키 추상미술의 특성분석-칸딘스키 회화의 조형적 요소로서의 추상적 특성분석을 중심으로』호남대학교, 2013 ,p19

드로잉적인 표현에 집중하여 다양한 선의 모습들이 한 화면에 담아 놓고 먹, 오일바, 연필 등 여러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선의 여러 모습을 표현하였다.

형태와 구도가 다른 탱크의 모습을 통해서 경쟁사회에서 서로를 공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의의 경쟁을 희망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라는 관계의 고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삶을 통해 관계를 마주하였을 때 '나'라는 존재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대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진 작품이다.

[작품 12]는 선과 점의 조화를 통해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대하는 이해관계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상호관계의 모습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점은 자기 자신, 선은 사회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관계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는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다. 색의 중첩과 일정한 간격의 선의 모습들은 인간 개개인의 개성들의 유기체들이며 이것은 결국 사회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하고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사회성을 얻을 수 있으며 관계를 통한 트라우마를 한번에 치유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에서도 진정성이 강조된 관계를 지향한다.

Ⅲ. 결 론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만들어간다. 사회와 관계는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존재로써 이루어진다.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유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개인의 미래와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면서 유대적인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 사회적 규범, 구조가 관계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결과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관계들이 등장한다.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 같은 목표로 단합을 이끌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지켜본다면 관계간의 진정한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문제와 동시에 감정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결국 관계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 없이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감정의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기며,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을 통해 접근한다. 사회 중심의 관계는 결과를 중시하며 개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감정 또한 객관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모습들은 관계를 통한 감정들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관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내면의 상처를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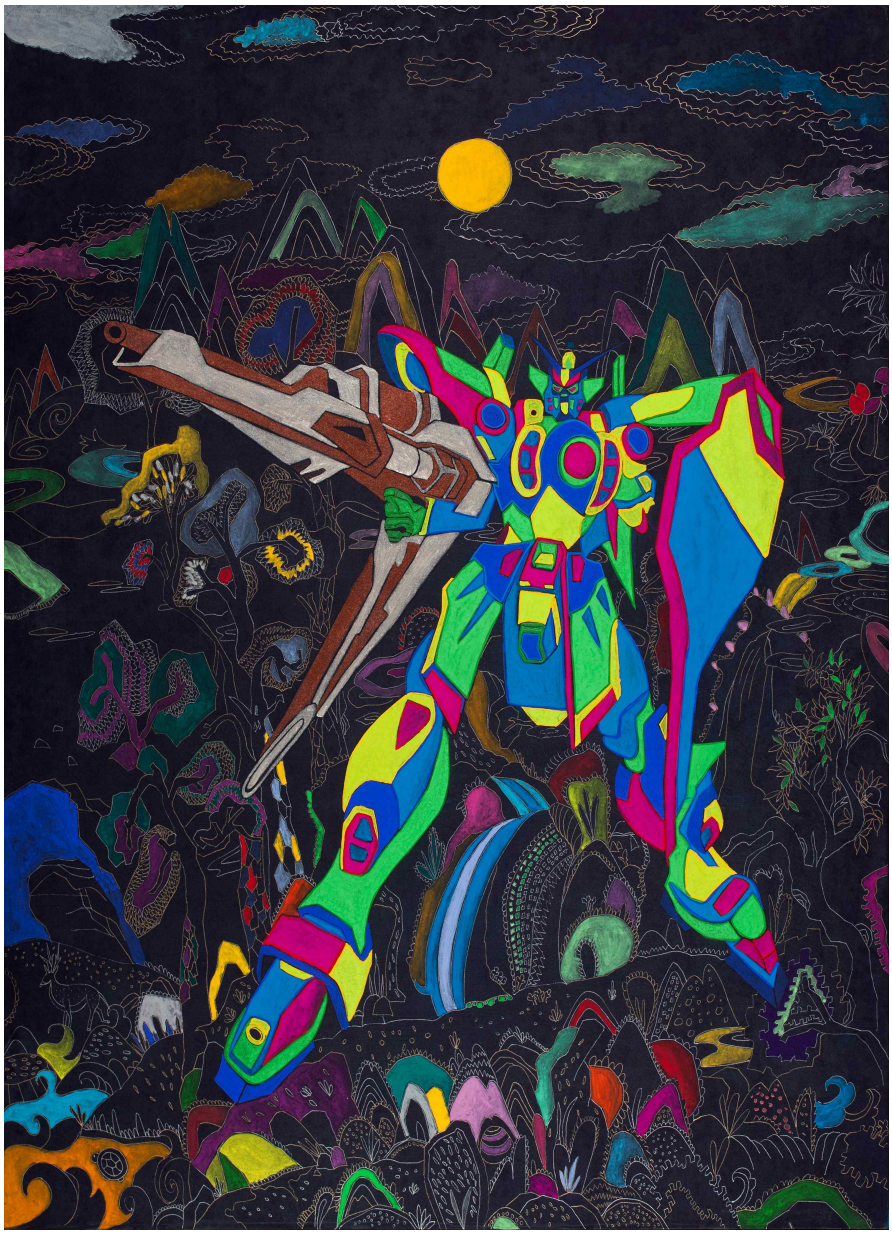
본인 또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받은 관계의 상처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작업 과정 중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치유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방어를 중심으로 내면적인 문제들을 상징화시켜 표현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또한 전쟁 무기를 화면에 등장시켜 신뢰하지 않는 관계의 모습을 마주하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시각적인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화면에서 점을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관계와 내면적인 감정에 대한 연결을 유도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관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의미로 강조하였다. 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혹은 관계를 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 속 존재하는 내면적인 감정들로 인해 사회에서 홀로 관계들을 해결 할 수 없다. 상대방을 폄하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구조에 대한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인식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고 감정을 대하는 모습들이 자유로워진다면 관계 속 갈등은 확연히 다른 인식으로 변하고 인간소외와 같은 관계와 연결되는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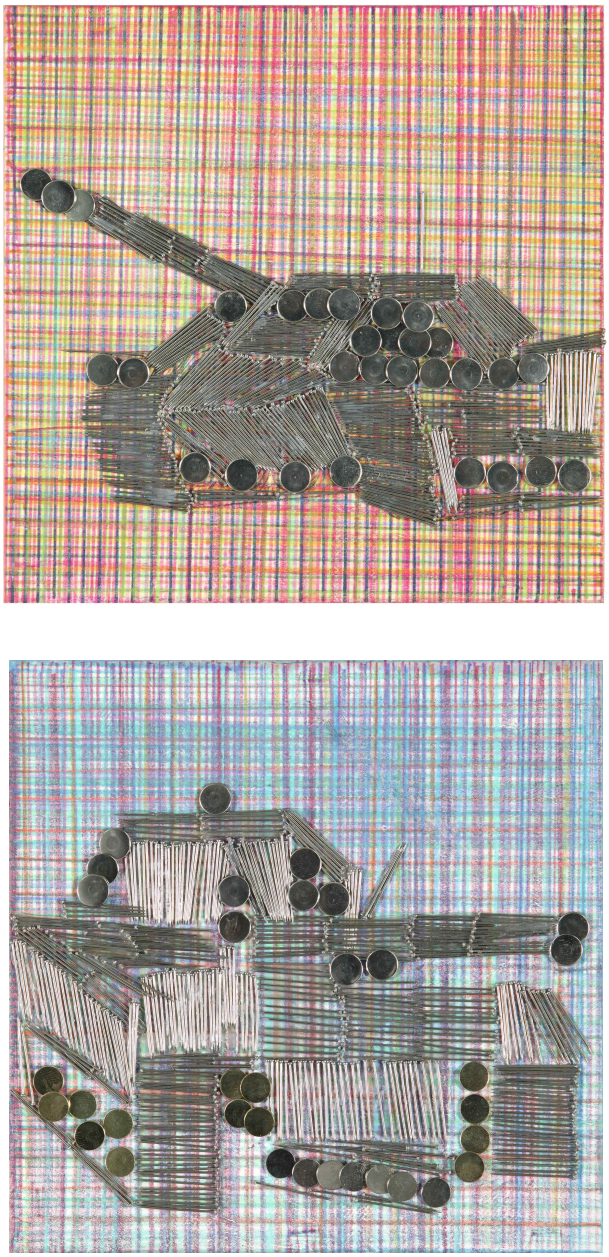
논문을 통해 관계를 통한 경험에 의한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진정한 관계의 의미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노력으로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은 추후 작업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모습들을 보여주며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해 나갈 것이다.

[작품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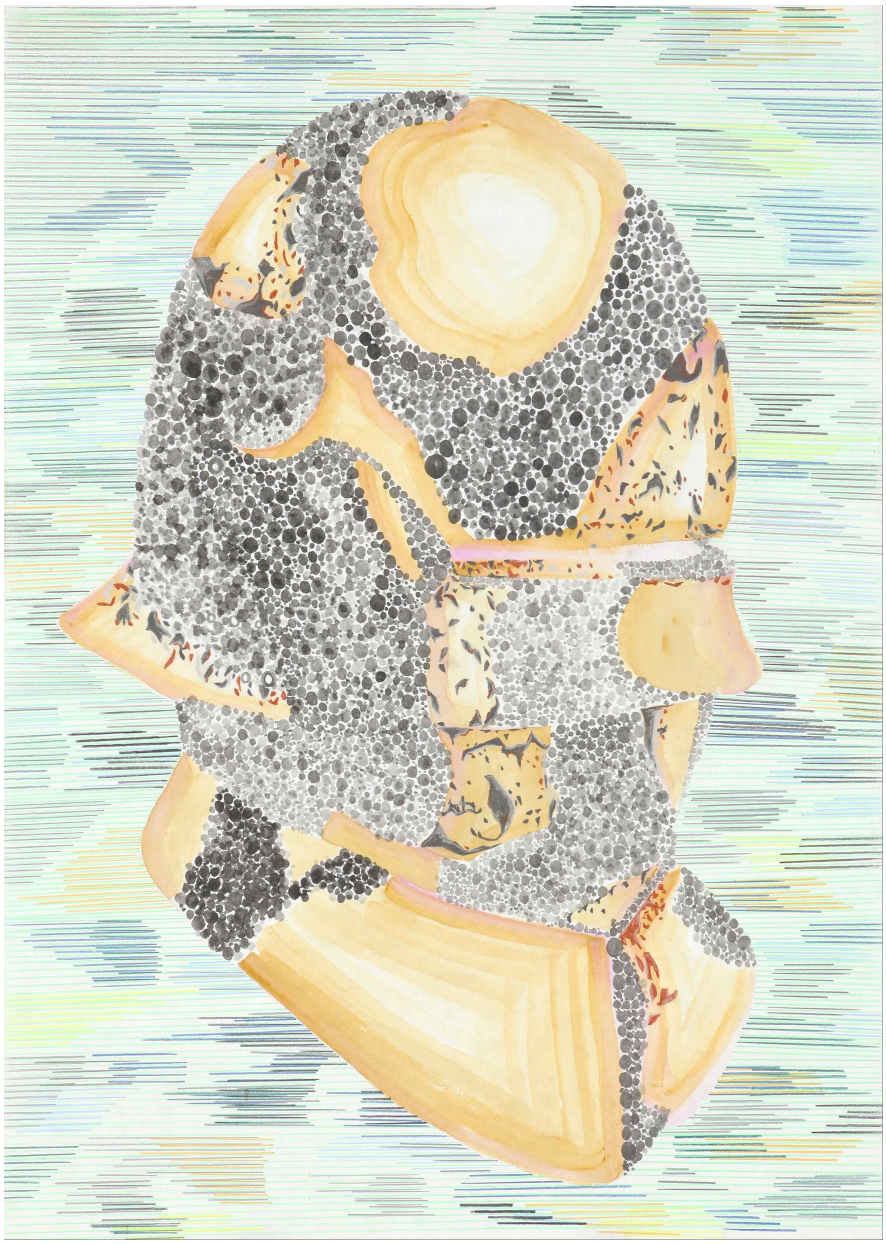
[작품 1] 건담 십장생도Ⅰ, 장지에 채색 ,117x91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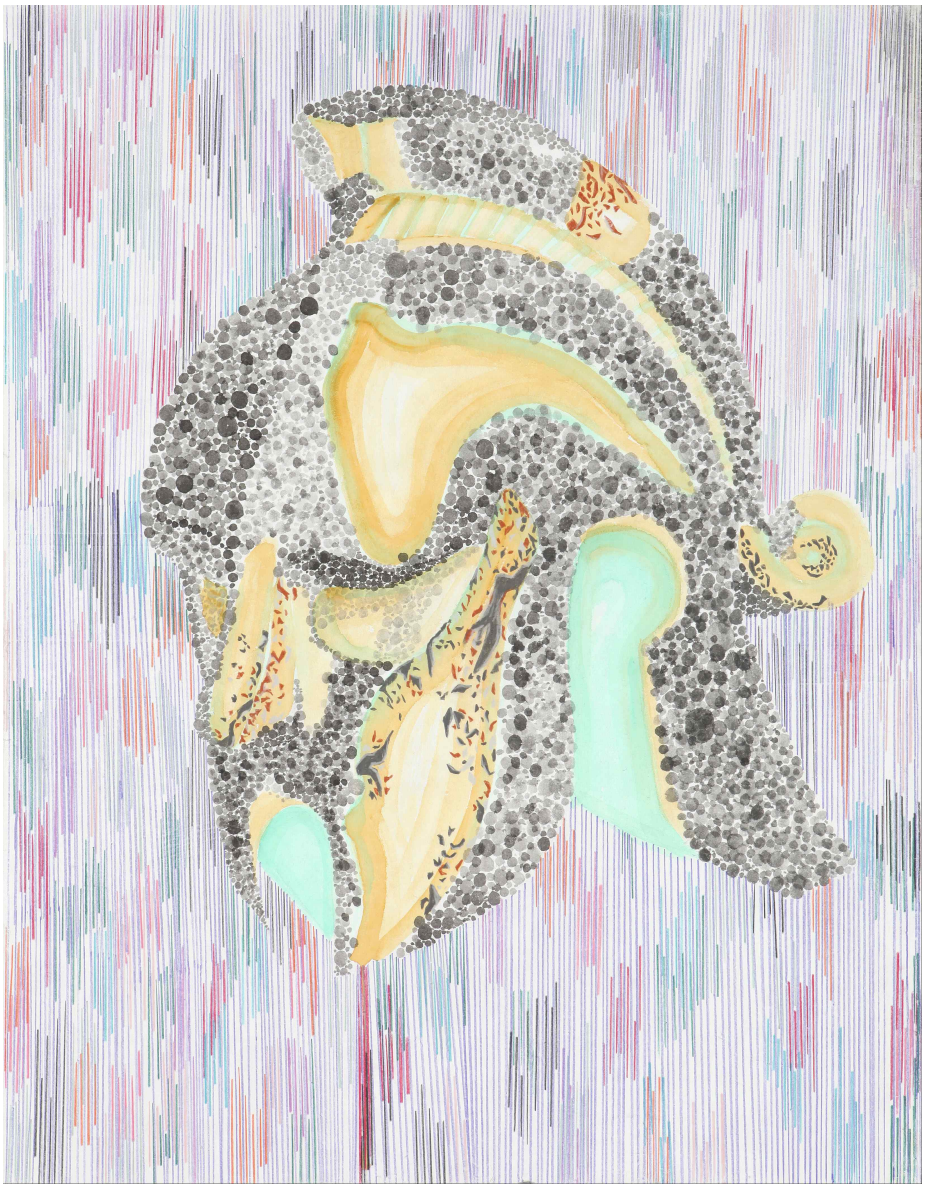
[작품 2] 건담 십장생도Ⅱ, 장지에 채색, 91x117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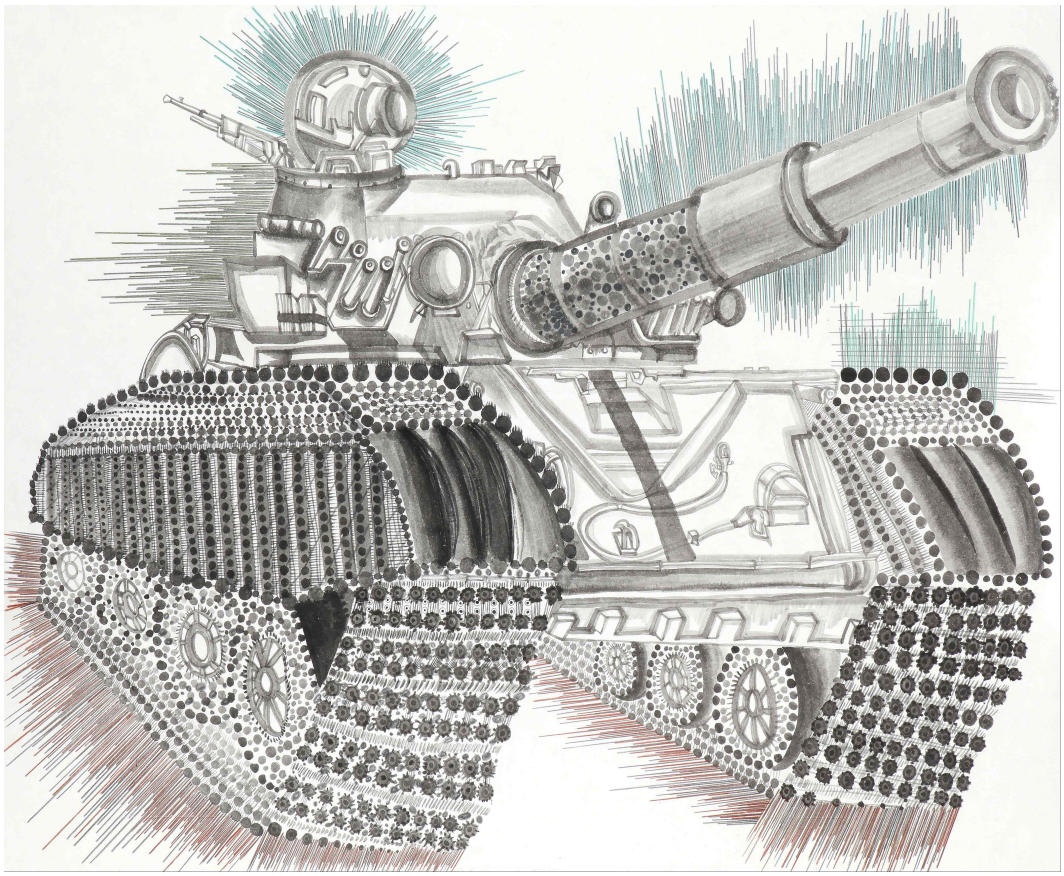
[작품 3] 관계를 통한 규제, 장지에 혼합재료, 30x30cm(x2), 2013



[작품 4] 보호의 본질 Ⅰ, 장지에 혼합재료, 91x117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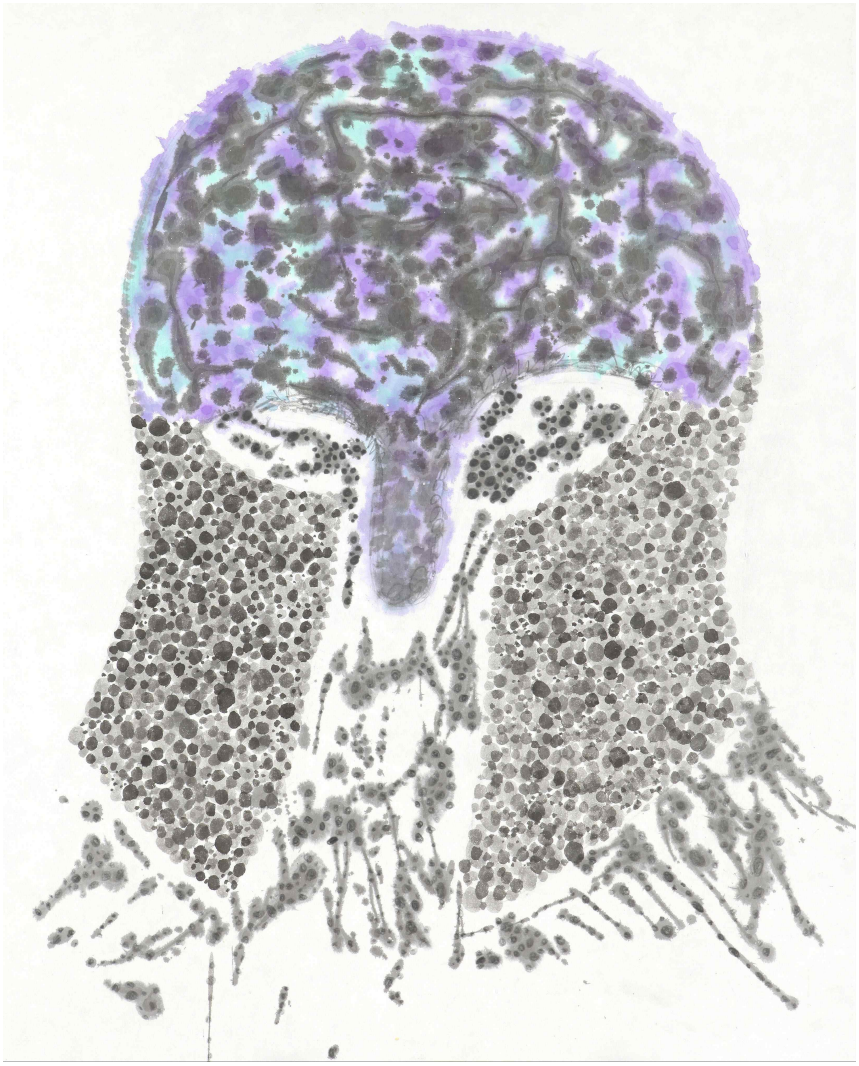
[작품 5] 보호의 본질Ⅱ, 장지에 혼합재료, 91x117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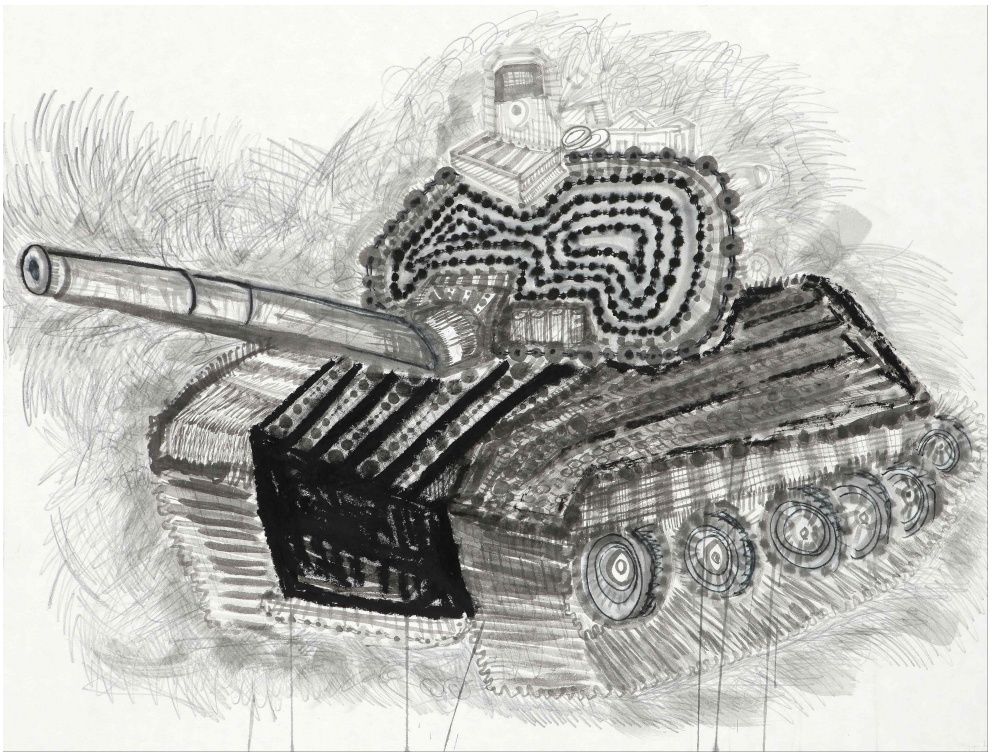
[작품 6] 보호하다, 장지에 먹, 163x130cm, 2014

[작품 7] 보호하기위한목적, 장지에 혼합재료, 45x53com(x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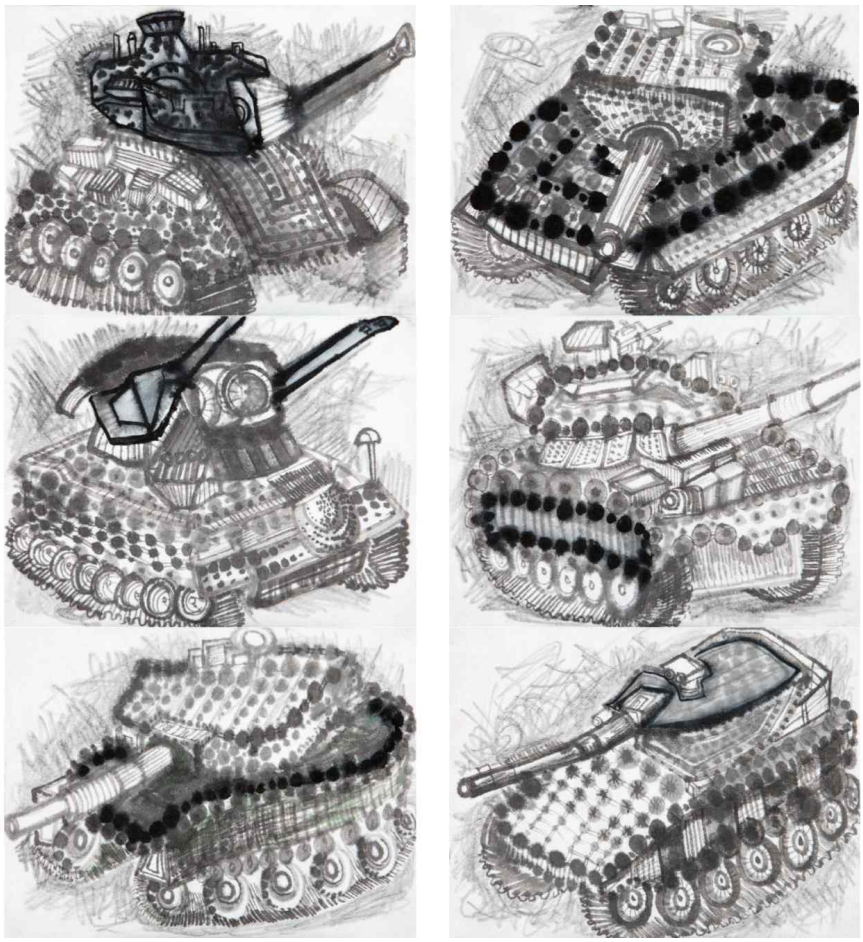
[작품 8] 보호자들(Protectors) I ,장지에 먹, 91x117cm, 2014



[작품 9] 보호자들(Protectors)Ⅱ, 장지에 먹, 91x117cm, 2014



[작품 10] 보호수단, 장지에 혼합재료, 117x91cm, 2014



[작품 11] 보호-경계, 장지에 먹, 15.8x22.7cm(x6), 2014

[작품 12] 보호화하다, 장지에 혼합재료, 50x50cm, 2014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문희, 이광자, 박경, 『인간관계의 이해』,학지사, 1999

이진경,『문화정치학의 영토들』,그린비 , 2007

칸딘스키, 권영필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열화당 , 2000

구현서,『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지사, 2010

에바 일루즈, 김정아,『감정 자본주의』,돌베개, 2010

칸딘스키, 차봉희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를 분석을 위하여』열화당, 2011

학위 논문

고승희, 『인간관계의 갈등의식에 관한 작품표현 연구』홍익대학교, 2001

박찬휘,『칸딘스키 추상미술의 특성분석』,호남대학교,2013,

장 미, 『인간관계와 소통이미지 표현연구』,서울대학교, 2015

사이트

두산 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f Expression of Emotional Defense Through Symbols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Kim E Seul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orks of art dealing with subject matters which symbolized formative appearances of defensive emotions through relationship from 2011 to 2014. The author looked at interactional aspects appearing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bserved situations of conflicts and the corresponding emotions through the term of emotional defense among diverse emotions occurring within such aspects.

Individuals live with a number of emotions amid numerous encounters. Relationship is a natural and important behavior composing the society. A society is centered on communities, not individuals, and here the society is maintained with inter-complementary relationship.

However, the standard of people who deal with relationships also changes and within communities emotions flow into an unwanted direction. In the end, as the society develops, the meaning of "us" gradually fades and bond between individuals is being lost. In the modern society which places importance on one's individuality, lack of communications exists and aspects of defending one's emotions, rather than revealing them, appear. Eventually, the relationship where communications come to have disappeared is the problem of ego beyond the social problem. It starts with non-existenc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individuals and it is the problem of emerging through diverse emotions existing in it. However, emotions individuals feel within their community do not have clear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y are good or bad. It is because of the aspects of relationship which cannot be predicted between humans. Regarding negative images of human relationship through the aspects of the community the author experienced, the meanings of genuine relationships through emotional defense were sought for and the causes for defensive attitudes were contemplated during this work.

The direction of the work was to express aspects of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humans and internal emotions within aspects of the human relationship the author experienced with visual images. Through this process, the author viewed humans' aspects isolated within the negative relationships from the internal perspectives and intends to study defensive attitudes and changes of emotions within them.